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鄭周澤

賣春女性の 社會復歸 支援에 관한 研究

- 성남시 중동 유리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easures to Support the Social
Readjustment of Female Prostitutes

2002年 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韓 玉 花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鄭 周 澤

賣春女性の 社會復歸 支援에 관한 研究

- 성남시 중동 유리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easures to Support the Social
Readjustment of Female Prostitutes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韓 玉 花

韓玉花의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으로 認定함

2002년 8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3
2.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매춘의 개념과 한국의 매춘 역사	5
1. 매춘의 개념	5
2. 한국의 매춘 역사	7
제 2 절 매춘의 발생요인	9
1. 개인적 요인	9
2. 사회구조적 요인	10
제 3 절 매춘여성의 문제점	12
제 4 절 한국의 매춘 정책	14
1. 윤락행위등방지법	15
2. 행정체계	16
제 5 절 매춘여성 지원활동 프로그램	16
1. 국내 프로그램	16
2. 국외 프로그램	19
제 3 장 연구방법과 절차	22
1. 조사 대상자	22

2. 연구기간 및 방법	22
3. 조사도구	22
제 4 장 조사결과의 분석	24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5
제 2 절 조사대상자의 실태	26
제 3 절 취미생활과 문화에 관한 욕구	34
제 4 절 사회복지에 관한 욕구	36
제 5 절 사회복지에 대한 소망	40
제 6 절 변수간 관계분석	44
제 5 장 결론 및 제언	58
참고문헌	61
ABSTRACT	64
부 록	66

표 목 차

<표 3-1> 질문지 구성	23
<표 4-1> 성남시 조사업소수와 여성수	24
<표 4-2> 조사대상자의 연령, 학력, 결혼여부	26
<표 4-3> 가출동기	27
<표 4-4> 전 직업	27
<표 4-5> 현직 종사년도	28
<표 4-6> 가족과의 관계	29
<표 4-7> 장래목표	29
<표 4-8> 현재 생활의 관심	30
<표 4-9> 조사대상자가 현재 가장 걱정하는 문제	30
<표 4-10> 월수입 현황	31
<표 4-11> 지출내역	32
<표 4-12> 음주와 흡연 여부	32
<표 4-13> 건강상태	33
<표 4-14>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	34
<표 4-15> 취미생활	35
<표 4-16> 문화생활	36
<표 4-17> 직업변경의지	37
<표 4-18> 직업 변경시 희망직종	37
<표 4-19> 취업교육의사	38
<표 4-20> 받고 싶은 취업훈련	38
<표 4-21> 취업장애요소	39
<표 4-22> 새로운 직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40

<표 4-23> 지역사회 취업훈련기관의 인지 유무	40
<표 4-24> 전문 상담인과 상담 필요의지	41
<표 4-25> 정부에 바라고 싶은 점	42
<표 4-26> 여성단체에 바라는 활동	43
<표 4-27> 사회복지기관에서 받고 싶은 프로그램	43
<표 4-28> 연령과 학력간의 교차분석 결과	44
<표 4-29> 연령에 따른 현재 직업 종사년수	45
<표 4-30> 연령과 상담필요성 인식	46
<표 4-31> 연령과 직업변경 의지	47
<표 4-32> 연령과 장래목표	48
<표 4-33> 연령과 희망직업	49
<표 4-34> 학력과 상담필요성 인식	50
<표 4-35> 학력과 직업변경 의지	51
<표 4-36> 학력과 장래목표	52
<표 4-37> 학력과 희망직업 의지	53
<표 4-38> 종사년수와 상담필요성 인식	54
<표 4-39> 종사년수와 직업변경 의지	55
<표 4-40> 종사년수와 장래목표	56
<표 4-41> 종사년수와 희망직업	5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한국사회에서 매춘여성의 문제는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성을 사고 파는 문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 특유의 낮은 여성인권의식이나 성과 관련하여 이중적인 인식의 영향으로 매매춘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매춘여성들 대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¹⁾ 매춘시장에 접근하지만 성산업 내에 존재하는 착취구조에 기인하여 이들이 목표로 한 것과 같은 수입은 올리지 못하고, 노예와 같은 생활을 강요당하고 착취되어 억압과 고통 속에 머물게 된다²⁾.

모든 유형의 매춘이 극단적인 강제와 착취의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밀집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은 사회적 공적영역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도 소외된다.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들, 경찰력에 의한 보호 등을 받을 수 없는 이들 여성들은 사회적 단절과 고립으로 주변화 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매춘여성으로의 길을 선택하는데 부와 쾌락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조사가 나타나고 있어 매춘행위는 더 이상 착취나 강제가 없는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어 매춘여성의 탈 매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일련의 사건³⁾들과 심각한 인권침

1) 이기영(1995), 윤호정(1995), 손덕수((1999), 채갑순(1999).

2) 원미혜,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p. 41-45.

3) 1992년 미군에게 살해된 윤금이씨 사건, 2000년 9월 19일과 2002년 1월 29일 군

해4)는 이들 여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었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은 매춘여성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함께 매춘여성들의 낮은 자존감과 무기력한 현실상황은 탈매춘을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매춘여성의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한 매춘여성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욕구조사가 전무하여 이에 필요성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조사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구조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탈매춘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매매춘 밀집지역 매춘여성의 사회복귀지원에 앞서 현재 매춘여성들이 심각한 불평등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매매춘시장에 머물고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 취업훈련과 사회복지서비스, 문화생활에 관한 욕구조사를 통하여 탈매춘에 필요한 직업과 훈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현실 속에서 가능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산화재참사사건.

4) 한겨레신문 2001년 12월 19일, 2002년 1월 4일.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매춘의 개념 및 한국의 매춘 역사를 통해 매춘여성들이 시대에 따른 사회적 위치와 비난과, 매춘여성의 정부정책을 고찰해보고, 한국사회에서 비난과 차별을 감수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있는 이들을 위해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과 외국의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매춘여성의 사회복귀의 필요한 직업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유흥업소 가운데 유리방 밀집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 유리방은 성매매업소 중에서 여성수가 가장 많고 부당한 대우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잦은 곳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곳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유리방업소 종사자여성들의 선행 욕구조사가 전무한 상태에서 성남시 유리방 밀집지역 여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전체 매춘여성의 욕구를 일반화하지는 못하였다.

설문지는 영업이 시작되는 저녁 7시~9시 사이의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배포하였는데, 기존의 순회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의 도움으로 배포와 수거를 할 수 있었다. 이는 조사지역 특성상 본 연구자 개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고, 설문작성시에 업주가 함께 있는 곳도 있어서 이로 인해 이곳 여성들이 설문작성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있음을 본 연구가 갖는 한계성이라 볼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성남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유흥업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접근하기 위해 5회에 걸쳐 현장 예비답사를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업소내에서 숙식하고 있는 여성들에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유흥업소 순회조사에 참여하고 있던 성남여성의 전화 현장활동가와 성남경찰서 경찰로 가능했다. 또한 본 연구에 있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1) 유리방

안이 들여다보이는 구조로 1층 한 면 전체 혹은 일부를 유리로 만든 거실에 여성들을 상품처럼 진열시켜놓고, 밖에서 성구매자들이 여성들을 고른 후 안쪽의 쪽방에서 술접대와 매매춘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소이다. 시·군에 따라서 식품접객업의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고, 업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창가로 분류되거나, 정부에 의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지역도 많다.⁵⁾

2)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7조)

5) 새움터 실태조사자료 2001, p. 47.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매춘의 개념과 한국의 매춘 역사

1. 매춘의 개념

매춘(prostitution)이라는 용어는 우리 나라에서 보통 윤락, 매매춘, 매음, 매매음, 성매매,⁶⁾ 성산업 등의 용어로 유사한 의미와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는데 “매춘”은 통상 성(性)이 거래의 대상으로 매매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매매춘”은 수요와 공급의 노동시장에 비추어 사고 파는 행위(買春/賣春)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제적인 관점을 지닌다⁷⁾.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윤락”을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의미하는데 이 용어는 도덕적인 관점을 지니면서 매춘 여성의 도덕적 타락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남녀의 윤리 규범을 다르게 인식하는 이중적 성윤리를 반영한다. 또한 성산업이란 이윤 창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매개로 거래되는 익명적 그리고 상업적 성의 매매 문제를 가시화 시킬 수 있고,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여성의 성이 산업화되는 이유를 질문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성산업과 함께 사용되는 성매매라는 용어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맥락성을 강조한다.⁸⁾ 따라서 자본주의적 배경을 전제하여 ‘매매춘은 성

6) 여성부와 여성운동단체들은 매매춘의 ‘춘’이 봄(春)으로 비유하여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성매매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은폐시킨다는 의미에서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며 현행 윤락 행위등방지법을 성매매방지 특별법으로 개정을 제기하고 있다.

7) 장(윤)필화, “여성 몸, 성,” 1999, 또 하나의 문화, p. 156.

8)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 2001, 또 하나의 문화, p.162.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익명을 전제하고, 금품수수를 매개로 하여 몸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중심의 성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⁹⁾

매매춘을 금지하는 모든 지역의 법률 조항은 사실상 매춘여성과 매춘남성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한쪽만을 제재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형법 제230조에는 '매춘이란 그 대가로서 금전을 수수하고 성행위를 할 것에 계약 또는 동의하거나 성을 제공할 때 유죄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사회사업사전(The Social Work Dictionary)에도 '매춘이란 돈이나 혹은 다른 이익과의 교환으로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위하여 자신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라고 되어있다.¹⁰⁾ 따라서 성을 경제적 관계로 사고 파는 행위로 풀이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매춘, 성매매, 매매춘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매매춘을 누구의 문제로 볼 것인가에서 성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구보다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연구는 훨씬 적게 다루어져 있으며, 이들 고객이 심리적 장애자임을 보여 주는 경우는 드물다. 연구분야에 나타나는 이러한 편파적 불균형은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로서, 남자들의 경우 온갖 성적 욕구를 분출하는 것을 '정상'이면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판받는 모순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매매춘문제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사회구조, 자본 재생산 구조의 여성억압 체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일치하는 것으로 매춘여성은 물론 상대 남성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¹¹⁾

9) 원미혜, 전게서, p.12.

10) Robert L Baker. *The social Work* (National of workers. Inc, 1987), p.127, 황진수, 1999, 현대복지행정론, p. 307에서 재인용.

11) Anthony Giddens. *Sociogy*, 1994 번역판, 김미숙외 현대사회학, 2000, p.139.

2. 한국의 매춘 역사

한국사회에서 매춘여성은 시대상황에 따라 매춘의 의미가 변화되어 왔다. 신라시대에 원화¹²⁾를 오늘의 기생의 시작으로 고려시대로 들어와서 기녀들은 관기로 궁중연회나 외교사절 접대연에 불려나갔지만 일반적으로 천시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의약이나 침선의 기술 또는 가무와 기예를 배우고 익혀서 필요한 일에 참여케 하였는데 시대가 내려올수록 대부분의 기녀는 사대부나 변경지방 군사들을 위한 매춘의 의미가 좀더 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근대 이전의 기생들은 가부장적 사회 속에 천인으로서 관료사회나 국가정책에 따라 희롱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계층이었으며 그들의 의하여 관계분야의 전통문화가 계승되기도 했다.¹³⁾

한국의 매춘 현상을 구조화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식민지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공창제도를 합법화시켜 조선사회에 매춘 현상을 더욱 만연시키는 계기를 가져왔다.¹⁴⁾ 1920년대 전반기를 거치면서 심한 생활고와 일본 문화정치로 인한 타락한 일본적 생활양식의 도입으로 인해 공창이 쇠퇴하고 사창이 번창하게 되면서 매춘업이 일반화되었다.¹⁵⁾

12) 처음에는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라에서 인물과 행실을 보고 천거해서 쓰려고 했고, 뒤에 이것이 화랑으로 오늘날의 외입장과 같은 것이다. 조선해어화사, 이능화, 동문선, 1992 p.2.

13)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조선시대 여성의 일과 생활”, 1999, p.154, 청년사.

14) 산하영애, “한국근대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1999,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

15) 이기영, 일제하의 매춘업-공창과 사창, 도시행정연구 제3집, 서울시립 대학교 도시행정 연구실, 손정목(1988) p.5에서 재인용

해방후 일제에 의해 도입된 공창제도가 미군정에 의해 폐지¹⁶⁾되긴 하였지만 사회 재적용 지원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매매춘 근절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미군과의 친선유지 외화획득 등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에 의해 기지촌에서의 ‘군대매춘’¹⁷⁾이 시작했다.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악을 뿌리뽑는다’는 차원에 매매춘에 대한 처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 시기는 한국의 산업화 추진으로 인한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해체로 인한 빈곤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진 순진한 시골여성들이 ‘무작정 상경’하여 역전에서부터 매춘의 늪에 빠져드는 과정은 60년대 매매춘의 대표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¹⁸⁾ 외화획득에 목적을 두고 1961년에 제정된 관광사업진흥법은 일본인을 상대로 한 매매춘목적의 관광사업으로 국가가 장려한 산업형 매매춘에 종사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

한국사회가 80년대 들어 가치관의 붕괴와 함께 유흥, 향락산업이 광범위해지고 제한된 공간이나 지역을 넘어 일상적으로 매매춘현상은 일반화되기 시작한다. 자본의 3차 서비스산업으로의 진입, 접대문화의 발달 등에 따라 향락산업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시장구조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구조적 분화’와 ‘기능적 전문화’의 과정을 밝게 된다. 소위 ‘산업형 매춘’이나 겸업매춘¹⁹⁾ 현상이 증가하여 성이 거래의 대

16) 미군정청은 행정명령 제 16호로 1948년 공창제도 폐지령을 선포하여 1948년에 시행되었다.

17) 제3세계 국가의 여성들이 그 나라에 주둔한 외국군대를 위한 R&R(Rest and Recreation) 정책 하에서 전쟁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작한 매춘을 일컫는다.(Barry, 1993 : 52 참조), 오지연, “미군 기지촌 매춘여성들의 주변적 문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7, p.11, 재인용.

18) 인권운동사랑방, 2000, p.4.

상이 되는 매매춘 현상은 무차별적인 확산의 길을 걷게 된다.¹⁹⁾

제 2 절 매춘여성의 발생요인

현대 한국사회에서 매매춘을 누구의 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회에서의 일어나는 매매춘과 우리사회의 개인에게 일어나는 매매춘의 의미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누가 매춘여성이 되고 매춘여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사회의 문화적 조건에 따라 그 의미와 사회적 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회 이론들이 매매춘을 하는 여성들의 삶의 맥락과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는 사회학적 문화적 경제적 관계를 설명하기 전까지 거의 모든 매매춘의 기초에 대한 논의는 남녀의 성적 욕망의 생물학적 차이나 매춘 여성들의 병리적 측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 개인적 요인

한 개인을 이해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성격이론이다. 서구에서는 여성일탈의 원인을 여성자신의 생리적, 심리학적 기질에 근거하여 설명하는데 영 (L. R. Young) 은 매춘 즉 성적 일탈행위는 매춘여성 이 그 원인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욕구에 기초한 의도적 행동에서 유래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내적 긴장의 주 특성으로 부모와의 결합 있는 관계, 애증간의 상극적 갈등, 관계형성의 능력결여, 피학대음란증 등을 들고 있다.²⁰⁾ 그러나 매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19) 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1994, p.101.

20) 이정숙(1984), “요보호 여성에 대한 사회사업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편, 『사회복지』 여름호, p.59, 강영수,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 이

다양한 접근 방식이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다루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인식태도는 우리나라의 매매춘 연구에도 그대로 나타나 1980년대 이전까지의 논의들은 주로 매춘여성의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상황분석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의 문제의식은 매춘의 원인은 '경제적 이유와 성적욕망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 매춘여성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 또는 개인의 가족생활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문제로 보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었다.²¹⁾ 그러나 지난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분명 문제의 본질을 왜곡, 은폐시켜 매춘여성의 지위나 행복은 기능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을 파는 사람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논리라고 볼 수 있으며, 매춘여성의 복지의 매우 소극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²²⁾

2. 사회구조적 요인

매매춘을 경제적 발전, 산업구조, 사회적 신분 등이 매매춘 행위와 관련이 있다.²³⁾ 매매춘을 사회구조적 파생물의 하나로 보는 갈등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여성의 불행을 성의 불평등, 특히 여성의 종속성과 차별적 착취적인 사회조건에 있으며.²⁴⁾ 이는 매매춘이 자본주의가 무산계급에게 요구하는 경제적, 성적 억압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여성의 생산노동 참여를 전면

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16, 재인용.

21) 강영수,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 1988,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6.

22) 김현준, "윤락행위규제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2000,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3.

23) 김동일, "성의 사회학," 1992, p.332, 문음사.

24) 김영모, 한국사회보장개혁론, 서울 : 중앙대학교출판부, 1995, p.229, 김현준, 상계서, p.14, 재인용.

화하고, 가사노동을 사회화시키는 것이 매매춘 제거를 위한 물적 기초가 된다²⁵⁾라고 보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구조적인 수준에서 심각한 왜곡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것을 한국사회의 남성의 이중적 성생활의 관습을 정착시켜온 가부장제와 매매춘제도가 서로의 존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매매춘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구조적 산물로서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 경제적으로 여성을 주변화 시킴으로써 여성의 종속적 위치를 정당화하고 고착시키려는 가부장제의 신념과 가치를 실행하는 잘 조직된 사회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²⁶⁾

매춘은 성이 사고 파는, 즉 상품으로 여성의 성이 교환되고 혹은 어떤 맥락에서는 교환되지 않은 어떤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 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회체제 내에서 여성은 여성의 성을 사용하는 남성을 통해 사회의 이익/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들이 돈을 위해 매춘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성의 성이 교환 수단이고 장사가 되는 상품이라는 사실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의 일부분이다.²⁷⁾

지금까지 매춘여성 문제를 개인의 병리학적 요소나 일탈적 속성에서 찾았으며,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경제적, 문화적 원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물이 현재 매매춘의 전체 구조를 알기에는 매춘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매춘여성이 사

25) 조형, 장필화, “국회 속기록에 나타난 여성정책 시각 : A. 매매춘에 대하여” 여성학 논집 제7집, pp.85-86, 김현준, 상계서, 재인용.

26) 김현준, 상계서, p.14.

27) 김은실, 전계서, p.169.

회적 비난과 착취에 시달림이 빈번하고 일시적이 현상이 아닌데 매매춘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들 즉 포주, 중간소개자, 기동서방, 경찰, 직업소개소 등에 관해 연구되어진 것이 없어 매매춘 문제에 폭넓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제 3 절 매춘여성의 문제점

현재 매매춘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처벌주의 정책은 음성적인 매매춘을 추방하지 못 할 뿐 아니라, 매춘여성이 손님이나 포주의 횡포 등을 신고할 수 없게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갖고 있다.²⁸⁾

매춘여성들이 대개 학업중퇴와 가출을 통해서 성산업으로 유입되는데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십대여성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가출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저임금 노동과 유흥업소 외에는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경제적인 대가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폭력이 자행되고, 자아를 제거시키는 억압과 통제가 이루어진다.²⁹⁾

남성들이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욕구에는 ‘비밀보장’과 ‘새로운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전제되어 있다. 특히 제한된 지역에서 일정한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의 경우 업주는 남성의 익명성과 새로움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끊임없이 교체해야 한다. 매춘 여성은 일차적으로 그들이 유지해 왔던 사회적 관계나 정체성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주변화된다. 그들은 업주나 알선업자들이 만들어

28) 원미혜, 전게서, p.24.

29) 이효희, “십대여성의 성적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1998,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

주는 가짜 신분증이나 보건증을 사용하고 가명을 요구하며 요구에 따라 유흥을 즐기는 존재로 가면을 쓰면서 자신을 성의 상품화와 분리시킨다.

성매매는 화대 지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춘 여성은 자신에게 화대를 지불하는 남성손님과 권력관계에 놓이게 됨에 따라 체위, 콘돔 사용 여부 등에서 성행위의 조건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손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임으로써 성병이나 에이즈 등 각종 성질환에 무력하게 노출되고 있다.³⁰⁾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의 콘돔 기피로 인해 매춘 여성 가운데 14%만 콘돔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³¹⁾

특히 보도방이나 유리방업소 등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곳으로 감금 및 화대착취,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어도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업소 내에 쪽방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수입은 대부분이 업주가 관리하고 외부활동이 거의 없는 데다 잦은 이동으로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입과 지출의 규모도 알 수 없고 몸이 아프면 수입에서 상당 금액을 공제하고 있어 돈을 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러는 과정에서 빚과 선불금이 쌓여 자립의 기회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매춘 여성이 가족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조건은 성산업의 착취자들에게 억압이나 폭력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울타리 없는 가족 출신이거나, 사회로부터 낙인찍히고, 폭력적인 환경 속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온 여성들로 어떤 형태이든지 제각기 상처를 안고 그 공간에서

30)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2000, p.191

31)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1993, p.54,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계서, p.87, 재인용.

좌절되고 손상된 상처를 갖게 된다.³²⁾ 매춘 여성 대부분이 낮은 자아감, 분노, 우울, 내외 통제감의 부족 등의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³⁾

그러므로 매매춘의 문제는 단지 매춘여성의 문제로만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여성의 지위, 매매춘 행위를 둘러싼 시장구조나 관련산업, 국민의 건강, 가족제도의 존립 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모든 분야와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인 것이다.

제 4 절 한국의 매춘 정책

한국은 매매춘에 대해 법적으로는 금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매춘여성을 관리하는 규제주의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금지주의는 매매춘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금지주의내에서 성을 파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경우,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는 경우, 또는 매매춘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등으로 나눈다.

규제주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매매춘을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지역내에서만 허용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매춘여성만이 영업을 하게 한다든지, 성병관리 등 정부의 감독과 규제 하에서 부분적으로 매춘을 허용하는 것이다.³⁴⁾

32) 한소리회, “매춘여성과 가출청소년의 심리치료 및 재유입방지를 위한 집단 상담훈련사업”, 1999.

33) 김정숙, “매춘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수도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9, p.102.

34) 신혜수, “매매춘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7.

1. 윤락행위등방지법

윤락행위규제정책은 사회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지향하는 현대 민주복지사회에서 사회적 차별의 불식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를 정책적으로 다루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가 않다.³⁵⁾ 그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전통과 사회문화적 관습 속에서 사회구성원의 마음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1961년 제정이래, 1995년과 1999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입법취지와 개정의 주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매매춘 행위에 대하여 금지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쌍벌규정, 벌금액수와 징역기간의 연장, 매춘여성(요보호자)에 대한 사회복지지원 시스템인 선도보호시설과 상담소의 개인운영가능, 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 등이다. 그러나 쌍벌규정은 매춘여성을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그 과정에서 당하게 되는 인신매매, 감금, 착취, 폭행 등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매춘여성을 요보호자로 규정하여 선도시설에 대한 조항³⁶⁾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인제공자를 여성으로 상정하고, 그에 따른 격리 조치로서의 의미에 불과하다. 매춘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교육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적 조항들은 피해여성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³⁷⁾

35) 최병선, 정부규제론, 서울 : 법문사, p.415, 김현준, p.9, 재인용.

36) 제10조(선도보호의 내용)는 1. 상담 및 치료 2. 개인의 정서안정과 인격향상을 위한 교육 3.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취업안내 4. 의료보호, 건강관리 및 생활지도등

37) 새움터, “경기도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2001, p.28.

2. 행정체계

현재 매매춘에 대한 정책의 집행은 법무부 및 경찰청에서 위법자를 단속하여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노동부는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를, 교통부 관광국에서는 위락시설을 중심으로 한 통제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는 매춘여성에게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녀복지과(계)에서 이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등 매춘여성 관련 행정체계는 일관성 있게 조직되어 있다기보다는 각 부처간에 통일된 입장을 갖도록 조율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³⁸⁾

제 5 절 매춘여성 지원활동 프로그램

1. 국내 프로그램

1980년 중반부터 매춘여성을 위한 단체들이 설립되어 활발히 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 나라의 민간단체의 활동은 기지촌을 시작으로 힘없고 의지할 때 없는 여성들을 위해 그들의 입장에서 귀를 기울이며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민간단체는 이 활동을 통하여 그 동안 기지촌이나 사창가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이 노출될 수 있었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매매춘 피해여성들의 탈매춘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나, 그 구성

38) 서정범, “그리스도교적 인권의 개념에서 본 한국 매매춘 문제에 대한 분석”,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37.

의 성격과 이념 등에 따라서 단체마다 조금씩 관점을 달리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1) 막달레나의 집

막달레나의 집은 1985년에 용산 지역에서 개원하여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선구자다. 매춘여성을 위하여 가정집을 전세내어 쉼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자유로운 출입 및 이용을 하도록 한다. 직업상담과 생활상담, 의료상담 사업을 하여 여성의 당면문제를 돕고 전업을 지원하며 기술교육을 알선한다.³⁹⁾

2) 한소리회

한소리회는 매매춘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의 연합체이며, 매매춘근절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 매춘여성들의 한(恨)의 목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한소리회는 1986년 성매매문제를 고민하는 각 지역의 쉼터와 개인의 모임으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성매매근절과 모든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소리에서 활동은 24시간 상담전화의 운영, 매춘여성을 위한 상담 활동을 통해 당면 문제를 지원(관계기관에 탄원서 제출, 포주의 빗포기각서를 받는 일, 빗을 청산하여 주는 일 등)하고 그들의 인권유린 문제를 사회에 알려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고 매춘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매매문제를 공론화하며, 정부의 성매매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활동과 의료, 법률, 상담, 쉼터제공,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 등

39) 황창용,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평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p.34.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새움터

새움터는 경기도 동두천 지역 기지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과 기지촌 매춘여성들이 우리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며 차츰차츰 자신들의 처지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6년에 설립된 순수한 민간단체이다. 새움터는 2000년도부터 기지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및 유형의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하는 종합지원사업을 개발하였고, 이 사업은 직업적 대안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의 직업재활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빚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습득과 심리적인 안정 등의 효과를 얻었다. 다음으로 아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보육비, 방과후 공부방 프로그램, 심리치유 프로그램, 진학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탈성매매 상담을 비롯하여 위기상담, 집단상담, 기술교육, 의료지원, 법률지원, 생계비지원, 주거지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여성들을 위해 공동식사를 제공하면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⁴⁰⁾

4) 은성원

사회복지법인 은성원은 1953년 전쟁 미망인 및 전쟁 고아 수용 보

40) 새움터,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2001, pp. 193-194.

호를 목적으로 서울에서 설립되어 1966년부터 윤락여성 및 윤락우려여성 보호 사업을 시작으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 무료로 숙식하면서 전문상담원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직업재활교육을 통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자립능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액 국고보조로 운영되며 직업교육은 미용과정과 컴퓨터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입소정원은 35명이며 입소자에게 1종 의료급여 자격부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진학과 복학을 위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⁴¹⁾

2. 국외 프로그램

1) Buklod ng Kababaihan(이하 Buklod)

Buklod는 필리핀에서 1987년 Olongapa시에서 설립되었으며,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적이고 여성인권의 침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성매매여성과 성매매 피해여성들 그리고 혼혈 아동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uklodd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혼혈아동에게 초, 중, 고등 교육을 보조하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자활하여 작은 가게를 창업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과 사후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⁴²⁾

41) 사회복지법인 은성원, 운영보고서, 2001.

42) 아시아 성산업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中, 새움터 자료, 재인용.

2) Action for REACH OUT

Action for REACH OUT은 홍콩의 민간단체이며, 1993년 활동을 시작하였다. Action for REACH OUT는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건강검진과 법률적인 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일시적인 쉼터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여성들을 돕고있는 여러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는 상담과 직업교육 그리고 출산여성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

첫째, 상담프로그램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전화상담을 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영어교육과 컴퓨터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돕는 것이며, 컴퓨터 강좌는 사무적인 일을 하고 싶지만 기술부족으로 취업 지원서를 내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출산여성을 돕는 프로그램은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1년치의 기저귀와 우유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⁴³⁾

3) Zi Teng

Zi Teng은 1994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홍콩에 있는 민간단체이다. Zi Teng은 사회운동가, 노동운동가, 여성학을 전공한 연구원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업은 다르지만 여성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이다.

Zi Teng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대중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3) 상계서.

Zi Teng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성매매여성들에게 법적 권리와 직업적인 안전, 건강 그리고 다른 사회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기상황에 개입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법률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⁴⁴⁾

4) Malmo Project

Malmo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성매매 지역이며, 다른 프로젝트의 모델이 되었다. 이 지역에서 1977년까지 진행된 말모프로젝트를 통해 72.5%의 여성들이 성매매를 그만두었고, 그만두지 못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마약에 의존하고 있었던 여성들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대안이 제공된다면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성매매를 그만둘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경제적 보조, 주택지원, 직업에 대한 지원, 의료지원과 상담, 포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원과 보호 등과 같은 성매매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즉, Malmo Project는 성매매를 없앨 수 있는 전략으로서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지원과 성매매를 반대하는 대중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⁴⁵⁾

44) 상계서.

45) 상계서.

제 3 장 연구방법과 절차

1. 조사 대상자

조사대상자는 성남시 중동 유흥업소(유리방) 여성종사자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기간 및 방법

본 연구는 2002년 3월 15에서 4월 29일까지 5회에 걸쳐 현장답사를 하고 설문배부는 2002년 4월 25일에서 26일까지 2일 동안 업소를 방문하여 배포한 후 수거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20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에서 161부가 회수되어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조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질문지의 구성 및 설문문항은 크게 4가지 영역, 총 29개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표 3-1> 설문지 구성

설문문항	문항내용	비 고
1-1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문제	
15-16	취미, 문화생활의 욕구	
17-24	취업안내와 취업훈련의 욕구	
25-29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욕구 문항	

배포한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기입한 설문지 161매 중에서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분석 가능한 설문지 161매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사회과학통계 프로그램인 SPSS/PC+를 이용하여 집계하였으며, 통계기법으로는 각 문항마다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실태를 조사하였고, 나타난 빈도를 바탕으로 연령과, 학력, 현재 직업 종사 년도와 취업의지, 취업훈련 욕구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욕구 등과의 교차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조사결과의 분석

본 조사가 실시된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중동 신홍역 주변으로 경기도에서 성매매가 가장 심각한 지역중의 한 곳으로 유리방이 밀집되어 있는 중동지역이다. 유리방은 기업형 집결지역으로 자본도 많이 투자되고 새 건물에 업소의 규모도 크며, 다른 지역보다 많은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112개 업소에 종사자는 600명에 이른다.⁴⁶⁾

성남시의 유리방은 도시가 개발되면서 재래시장과 함께 주위에 변화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전철역 주변으로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과거에는 사창가로 불리던 지역이었는데 성산업이 확산되면서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숙박업소등이 뒤섞여 큰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표 4-1> 성남시 조사업소수와 여성수

	밀 집 지역수	지역명	업 소 유 형	조 사 업소수	여성수	지역적 특 성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	2	중동A	유리방	112	850	신홍역 주변지
		중동B	여인숙/여관/모텔	85	400	신홍역 주변지
		합계		197	1,250	

※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2001, 새움터

46) 새움터, 실태조사, 2001.

유리방 업소종사 여성들은 업주와 성구매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상품화되고 있다. 대부분은 1층을 전면, 혹은 일부를 유리로 만들어서 여성들을 마치 상품처럼 진열해 놓고, 성구매자들이 여성들을 고를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다. 호객행위를 위해서 종사자 여성들에게 모델처럼 유니폼을 입히고 주차장 도우미들과 같은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4-2>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학력, 그리고 결혼여부에 대한 질문으로서 연령 대를 살펴보면 25-29세 미만이 53.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24세가 31.7%로 나타났다. 30-34세가 11.8%로 35세 이상은 3.1%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포는 고졸이 59.0%로 나타났으며 중졸이 34.8%로 다음이며 초등졸이 5.0%로, 대졸이 1.2%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높은 학력수준의 조사결과는 국민전체의 교육수준 향상과도 관련을 가지지만 취업기회의 제한과 불평등성, 사회가치관의 변화, 도시생활의 사치성과 익명성, 그리고 허영과 자극 유흥 등이 매춘생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혼인 조사대상자는 95.0%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은 1.9%로 동거와 이혼이 각각 1.2%로 나타났으며 사별이 0.6%로 유흥업소 종사자 가운데 기혼자의 비율이 낮은 것은 직업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2> 조사대상자의 연령, 학력, 결혼여부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24세	51	31.7
	25-29세	86	53.4
	30-34세	19	11.8
	35세 이상	5	3.1
학력	초등졸	8	5.0
	중졸	56	34.8
	고졸	95	59.0
	대졸	2	1.2
결혼상태	기혼	3	1.9
	미혼	153	95.0
	동거	2	1.2
	사별	1	0.6
	이혼	2	1.2
합계		161	100.0

제 2 절 조사대상자의 실태

<표 4-3>의 결과와 같이 집을 나오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집안형편이 어려워”가 30.4%로 가장 높으며, 6.2%는 “가족과의 불화나 학대가 동기였다”, “친구가 권해서”는 6.8%, “성폭력 후 자포자기해서가 가출한 것”이 1.9%로 나타났다. 그러나 70%정도는 집안의 경제적 빈곤, 결핍 외에 가출의 동기가 다양한 것으로 보아 이는 우리사회에 잘못된 가치관과 금전만능주의, 불안정한 가족관계, 무관심, 유해한 사회환경과 학교생활에 부적응 등이 가출을 하도록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3> 가출동기

	빈도	퍼센트
친구권유	11	6.8
가족과의 불화	10	6.2
학교중퇴	9	5.6
성폭력후 자포자기	3	1.9
집안의 어려움	49	30.4
기타	79	49.1
합계	161	100.0

<표 4-4>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직전 직업으로接客업소 종사가 55.9%로 가장 많이 나타나 현재 직업에 자연스럽게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회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8.1%, 생산직 공원과 점원이 각각 6.2%로 나타나며 가정주부는 1.2%로 나타났다.

<표 4-4> 전 직업

	빈도	퍼센트
회사사무원	13	8.1
接客업수 종사	90	55.9
생산직 공원	10	6.2
가정주부	2	1.2
점원	10	6.2
기타	36	22.4
합계	161	100.0

<표 4-5>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년수를 조사한 것으로 응답자중에서 1-3년 미만이 42.5%로, 1년미만이 31.3%로 나타났고 3-5년 미만이 16.3%로 나타났다. 5-8년 미만이 6.8%로, 8년 이상은 3.1%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가출을 통해接客업소로 전전하다 현재 업소에 정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5> 현직 종사년도

	빈도	퍼센트
1년 미만	51	31.7
1-3년 미만	68	42.2
3-5년 미만	26	16.1
5-8년 미만	11	6.8
8년 이상	5	3.1
합계	161	100.0

<표 4-6>은 가족간의 관계에 대한 응답으로 응답자의 57.1%가 “부모와 우애 있었다”와 “서로 돕고 발전을 도모했다”가 15.5%로 나타났으며 “가족이 무신경하고 정도 없었다”는 13.7%이고 “부모이혼 혹은 별거”는 9.9%, “가족과 우애 없었다”가 3.7%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6> 가족과의 관계

	빈도	퍼센트
부모형제와 우애 있었다	92	57.1
부모이혼, 별거중	16	9.9
친척과 가족 우애 없었다	6	3.7
서로 도우려고 노력, 발전을 도모	25	15.5
가족구성원 무신경, 정도 없었다.	22	13.7
합계	161	100.0

<표 4-7>은 앞으로의 목표를 묻는 질문으로 응답자의 75.2%을 자영업을 원하는 것으로 가장 높으며,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결혼적령기에 여성들로서 결혼보다는 돈을 벌어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특정직업으로 인해 관심을 적게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표없이 산다는 2.5%로 나타나 현재의 생활에서 아무 희망없이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 배워 취업은 1.9%로 나타났다.

<표 4-7> 장래목표

	빈도	퍼센트
장래목표 없음	4	2.5
기술배워 취업	3	1.9
결혼	17	10.6
자금모아 자영업	121	75.2
기타	16	9.9
합계	161	100.0

<표 4-8>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는 현재 생활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돈(경제력)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대 생활의 가치의 기준을 경제중심으로 두는 점과 자영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돈이며 이는 직업으로 인한 특수성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4-8> 현재 생활의 관심

	빈도	퍼센트
건강	29	18.0
경제력(돈)	115	71.4
결혼 및 이성관계	2	1.2
취미생활	1	0.6
기타	14	8.7
합계	161	100.0

<표 4-9>은 조사대상자가 현재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가족문제가 27.3%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출을 통해 현재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특성상 자유롭게 가족간의 유대를 갖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이 건강문제로 25.5%을 보여 일반여성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특히 건강에 대한 문제는 몸이 아프면 수입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종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성격문제는 8.7%이며 취업과 진학에는 3.1%로 이성문제는 3.7%로 낮게 나타났다.

<표 4-9> 조사대상자가 현재 가장 걱정하는 문제

	빈도	퍼센트
진로문제	5	3.1
건강문제	41	25.5
자신의 성격문제	14	8.7
이성문제	6	3.7
가족문제	44	27.3
기타	51	31.7
합계	161	100.0

<표 4-10>은 유흥업 종사자들의 월 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39.1%정도로 가장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0만원에서 250만원이하가 25.5%이며 100에서 150만원이하는 21.7%로 나타났다. 250에서 350만원미만은 8.7%, 100만원미만이 3.1%이고 350만원이상은 1.9%로 나타나 여타 노동시장과 비교할 때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월수입 현황

	빈도	퍼센트
100만원이하	5	3.1
100만원 이상 150만원이하	35	21.7
150만원 이상 200만원이하	63	39.1
200만원 이상 250만원이하	41	25.5
250만원 이상 350만원이하	14	8.7
350만원 이상	3	1.9
합계	161	100.0

<표 4-11>는 수입가운데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저축이 36.6%로 나타났다. 부모나 형제에게 송금한다는 27.3%를 나타냈으며 옷과 화장품, 간식비는 26.7%를 지출하는 것으로 직업의 필요한 의상이나 화장품을 구입하는데 것으로 볼 수 있다. 빚이나 이자를 갚는다는 2.5%를 쓴다고 하여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지출내역

	빈도	퍼센트
부모, 형제에게 송금	44	27.3
옷, 화장품, 간식비	43	26.7
빚, 이자청산	4	2.5
저축	59	36.6
기타	11	6.8
합계	161	100.0

<표 4-12>은 조사대상자중 78.3%가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음주만 한다는 9.9%, 흡연만 한다는 6.2%로 나타났으며 모두 다 안 한다는 5.6%로 응답했다. 업소내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은 반복되는 생활과 스트레스 해소에 어려움이 많고, 지속적인 음주와 흡연은 여성들에게 각종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12> 음주와 흡연 여부

	빈도	퍼센트
모두 다한다	126	78.3
음주만 한다	16	9.9
흡연만 한다	10	6.2
모두 다 안한다	9	5.6
합계	161	100.0

현재의 가장 걱정되는 질환을 묻는 질문에 28.6%가 체중의 증가라고 응답했다. 이는 외부활동이 거의 없는데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잦은 음주가 체중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장계통은 24.2.0%를 보이며, 호흡기계통은 6.2%, 산부인과계통은 1.2%로 나타났다.

<표 4-13> 건강상태

	빈도	퍼센트
위장계통	39	24.2
체중의 증가	46	28.6
간장병	3	1.9
산부인과계통	2	1.2
신경계	13	8.1
호흡기	10	6.2
기타	48	29.8
합계	161	100.0

<표 4-14>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묻는 질문으로 가장 많은 응답인 47.2%가 부모님이라고 하였으며, 친구가 14.3%가 형제자매는 11.8%로 여성단체나 상담소는 2.5%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실태를 비취어 볼 때 가족간의 왕래가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지 않는다.

<표 4-14>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

	빈도	퍼센트
부모님	76	47.2
친구	23	14.3
애인	1	0.6
형제자매	19	11.8
여성단체나 상담소	4	2.5
경찰	2	1.2
기타	36	22.4
합계	161	100.0

제 3 절 취미생활과 문화에 관한 욕구

<표 4-15>은 취미생활을 묻는 질문으로 29.2%가 운동(헬스)을 소망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업소 내에서 생활하고 외부활동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십자수와 뜨개질 등이 17.4%를 나타냈고, 여행, 등산이 14.3%이며 독서는 6.8%로 요리 6.8%, 노래부르기가 5.0%로 댄스는 3.7%, 꽃꽂이는 1.2%로 나타났다.

<표 4-15> 취미생활

	빈도	퍼센트
운동(수영, 헬스)	47	29.2
홈패션	28	17.4
노래부르기	8	5.0
요리	11	6.8
여행, 등산	23	14.3
독서	11	6.8
꽃꽂이	2	1.2
댄스	6	3.7
기타	25	15.5
합계	161	100.0

<표 4-16>은 하고 싶은 문화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여행이 32.3%로 다음이 각종 스포츠 활동 22.4%로 나타났다. 연극, 영화감상이 15.5%로 비교적 외부활동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14.9%는 인터넷 사용을 희망하며 음악, 미술감상은 1.2%로 교양강좌는 0.6%로 나타났다.

응답한 여성들이 스포츠나 여행 등의 취미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보여 여타 일반여성들과 다름이 없는 소망들을 볼 수 있다.

<표 4-16> 문화생활

	빈도	퍼센트
인터넷사용	24	14.9
각종 스포츠활동	36	22.4
연극, 영화감상	25	15.5
교양강좌수강	1	0.6
여행	52	32.3
음악, 미술감상	2	1.2
기타	21	13.0
합계	161	100.0

제 4 절 사회복귀에 관한 욕구

현재의 생활을 청산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취업훈련 내용과 직종, 취업에 장애가 되는 요소 등 전반적으로 취업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표 4-17>은 현재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 는지를 묻는 질문에 60.9%가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모르겠다는 25.5%로 나타났으며 바꾸고 싶다는 13.7%로 응답했다. 이는 특별한 기술이 없 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들 여성들이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 생 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7> 직업변경의지

	빈도	퍼센트
바꾸고 싶다	22	13.7
바꾸고 싶지 않다	98	60.9
모르겠다	41	25.5
합계	161	100.0

<표 4-18>는 직업을 바꾼다면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문항으로 옷가게 23.6%로 나타났고 카페나 커피숍이 13.7%로 식당이 8.1%이며 단란주점이 5.0%이고 미장원은 3.7%로 꽃집이 5.6% 서점이나 비디오 가게는 4.3%로 나타났다.

<표 4-18> 직업 변경시 희망직종

	빈도	퍼센트
식당(음식점)	13	8.1
미장원	6	3.7
꽃집	9	5.6
카페, 커피숍	22	13.7
서점, 비디오점	7	4.3
단란주점	8	5.0
슈퍼마켓	4	2.5
옷가게	38	23.6
기타	54	33.5
합계	161	100.0

〈표 4-19〉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3%만이 받을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받을 의사가 없다는 89.4%로 많은 모르겠다가 1.2%로 나타났다.

〈표 4-19〉 취업교육의사

	빈도	퍼센트
받을 의사 있다	15	9.3
받을 의사 없다	144	89.4
모르겠다	2	1.2
합계	161	100.0

〈표 4-20〉은 조사대상자는 받고 싶은 취업훈련이 있다면에 대한 질문으로 26.1%가 컴퓨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18.0%로 미용사를, 조리사는 16.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이 13.7%로 사무직이 3.7%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받고 싶은 취업훈련

	빈도	퍼센트
조리, 요리사	26	16.1
제과, 제빵사	1	.6
미용사	29	18.0
컴퓨터 관련	42	26.1
사무직	6	3.7
창업교육	22	13.7
기타	35	21.7
합계	161	100.0

<표 4-21>는 조사대상자는 취업을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를 묻는 질문으로 학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가 26.1%로 응답했으며 기술이 부족해서 취업이 힘들다는 것이 19.3%로 나타났다. 급여가 적어서는 9.9%로 거주할 집이 마련 안되어서는 2.5%를 나타내 기타 제외한 취업의 장애요소로 학력과 기술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고 이러한 장애요소로 현재 직업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취업장애요소

	빈도	퍼센트
학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42	26.1
거주할 집이 없어서	4	2.5
기술이 없어서	31	19.3
급여가 적어서	16	9.9
사회적응기술의 부족	19	11.8
빛의 청산이 어려워서	1	.6
기타	48	29.8
합계	161	100.0

<표 4-22>은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응답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마음가짐이나 여건에 대한 응답으로 응답자의 52.8%가 본인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것은 직업과 관련하여 자신감의 결여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에 적합한 기술이나 능력개발이 20.5%로 정부의 고용정책 개선이 3.7%, 직업교육이나 훈련기회제공은 1.9%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새로운 직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빈도	퍼센트
본인의 적극적 사고	85	52.8
정부의 고용정책 개선	6	3.7
취업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개발	33	20.5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교육기회 제공	3	1.9
기타	34	21.1
합계	161	100.0

<표 4-23> 조사대상자의 57.8%가 지역사회 취업훈련기관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름, 위치 정도 안다가 23.6%이며 잘 알고 있다는 18.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외부활동이 적고 적극적인 취업훈련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직업 외에는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23> 지역사회 취업훈련기관의 인지 유무

	빈도	퍼센트
전혀 모름	93	57.8
이름과 위치정도만 앎	38	23.6
잘 알고 있음	30	18.6
합계	161	100.0

제 5 절 사회복지에 대한 소망

유흥업소 종사여성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알아보고 필요한 정보나 도움이 무엇이며, 어떠한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4-24>는 유흥업 종사로 일하는데 고충처리나 필요한 상담을 제공해 주는 전문상담이 필요한가의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필요없다가 58.4%로 나타났고 전혀 필요없다도 14.3%로 응답했다. 필요하다는 11.8%로 꼭 필요하다는 4.3%로 응답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들에게 도움과 고충을 들어 줄 상담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 데서 오는 인식부족으로 볼 수 있다.

<표 4-24> 전문 상담인과 상담 필요의지

	빈도	퍼센트
꼭 필요하다	7	4.3
필요하다	19	11.8
필요없다	94	58.4
전혀 필요없다	23	14.3
기타	18	11.2
합계	161	100.0

<표 4-25>은 조사대상자에게 정부에 대해 바라고 싶은 점을 묻는 질문에 54.7%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자로 응답했다. 이는 정부가 이들에게 혜택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복지요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당업주와 폭력배 처벌이 6.2%가 요구하고 것으로 나타났고 진학, 복학교육이 4.3%로 취업전문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3.7%로 나타났다.

<표 4-25> 정부에 바라고 싶은 점

	빈도	퍼센트
취업전문직업교육이수	6	3.7
진학, 복학준비 교육	7	4.3
부당업주, 폭력배 처벌	10	6.2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음	88	54.7
기타	50	31.1
합계	161	100.0

<표 4-26>을 보면 여성단체가 조사대상자들을 위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상자의 69.6%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9.9%로 전용상담 및 쉼터 마련은 4.3%가 원했으며 부당업주에 대한 감시와 고발활동을 필요한 것이 3.1%이며 개인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상담은 2.5%로 나타나 여성단체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아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6> 여성단체에 바라는 활동

	빈도	퍼센트
취업알선 및 창업교육	2	1.2
부당업소의 대한 감시와 고발활동	5	3.1
개인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상담	4	2.5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	16	9.9
전용 상담 전화 및 쉼터 마련	7	4.3
기타	15	9.3
생각해 본 적 없다	112	69.6
합계	161	100.0

<표 4-27>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 바라는 프로그램으로 20.5%가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프로그램은 8.1%로 교육준비를 위해서는 6.2%로 가정생활교육은 1.2%로 응답했다. 전체 대상자 중 52.8%가 생각해 본 적 없기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기관과의 접촉을 가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4-27> 사회복지기관에서 받고 싶은 프로그램

	빈도	퍼센트
가정 생활 교육	2	1.2
취업 훈련 프로그램	33	20.5
취미 프로그램	13	8.1
교육 준비	10	6.2
기타	18	11.2
생각해 본 적 없음	85	52.8
합계	161	100.0

제 6 절 변수간 관계분석

<표 4-28>에서는 조사대상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연령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우리 나라 교육제도는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과정이며 직업여성들의 교육수준도 최소한의 교육수준인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전체의 90%를 넘었으며, 연령대도 직업여성의 중간 연령대인 25-29세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표 4-28> 연령과 학력간의 교차분석 결과

		연령				전체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학력	초등졸	5 (3.1%)	3 (1.9%)			8 (5.0%)
	중졸	25 (15.5%)	27 (16.8%)	3 (1.9%)	1 (0.6%)	56 (34.8%)
	고졸	21 (13.0%)	55 (34.2%)	15 (9.3%)	4 (2.5%)	95 (59.0%)
	대졸		1 (0.6%)	1 (0.6%)		2 (1.2%)
전체		51 (31.7%)	86 (53.4%)	19 (11.8%)	5 (3.1%)	161 (100.0%)

$$\chi^2 = 17.443 \quad df = 9 \quad P = 0.042$$

<표 4-29>를 보면 연령에 따른 현재 직업종사 기간을 살펴본 것으로 종사년수는 1-3년 미만이 42.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년 미만이 31.7%로 나타났고 3-5년 미만은 16.1%로 5-8년은 6.8%로, 8년 이상은 3.1%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과 살펴보면, 25-29세 미만이 53.5%

로 가장 많고 20-24세는 31.7%로, 30-34은 11.8%로, 35세 이상은 3.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령대가 낮아 질수록 직업종사 기간은 짧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종사기간도 길어졌지만 연령이 높은 응답자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20%(30대 이상)을 넘지 않았으며, 연령과 직업종사 기간과의 통계적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표 4-29> 연령에 따른 현재 직업 종사년수

		연령				전체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종사 년 수	1년미만	27 (16.8%)	20 (12.4%)	4 (2.5%)		51 (31.7%)
	1-3년 미만	22 (13.7%)	39 (24.2%)	5 (3.1%)	2 (1.2%)	68 (42.2%)
	3-5년 미만	2 (1.2%)	16 (9.9%)	8 (5.0%)		26 (16.1%)
	5-8년 미만		7 (4.3%)	2 (1.2%)	2 (1.2%)	11 (6.8%)
	8년 이상		4 (2.5%)		1 (0.6%)	5 (3.1%)
전체		51 (31.7%)	86 (53.5%)	19 (11.8%)	5 (3.0%)	161 (100.0%)

$$\chi^2 = 46.157 \quad df = 12 \quad P = 0.000$$

<표 4-30>은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생활에서 상담필요성을 연령과 살펴보면, 필요없다가 58.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혀 필요없다는 14.3%로 나타나 상담의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상담이 필요

하다는 11.8%이고, 꼭 필요하다는 4.3%로 나타났다. 연령으로 보면 25-29세가 53.4%로 가장 많고 다음이 20-24세가 31.7%로, 30-34세가 11.8%로, 35세 이상은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이 높은 여성들은 연령이 낮은 여성들보다 현재의 생활의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곳 여성들이 정책당국의 관심대상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P>0.05$)

<표 4-30> 연령과 상담필요성 인식

		20-24세				전체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상 담 필 요	꼭 필요하다	4 (2.5%)	3 (1.9%)			7 (4.3%)
	필요하다	4 (2.5%)	11 (6.8%)	4 (2.5%)		19 (11.8%)
	필요없다	28 (17.4%)	47 (29.2%)	14 (8.7%)	5 (3.1%)	94 (58.4%)
	전혀 필요없다	10 (6.2%)	12 (7.5%)	1 (0.6%)		23 (14.3%)
	기타	5 (3.1%)	13 (8.1%)			18 (11.2%)
전체		51 (31.7%)	86 (53.4%)	19 (11.8%)	5 (3.1%)	161 (100.0%)

$$\chi^2 = 14.671 \quad df = 12 \quad P = 0.260$$

<표 4-31>에서는 연령에 따른 직업변경의 의지를 물어본 것으로

전체적으로 필요없다는 58.4%로 가장 많고, 전혀 필요없다가 14.3%로 나타났다. 상담이 필요하다는 11.8%이고 꼭 필요하다는 4.3%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령으로 보면, 25-29세가 53.4%로 가장 많고, 20-24세는 31.7%로, 30-34세는 11.8%로, 35세 이상은 3.1%로 응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의 직업변경의 의지가 이처럼 낮은 것은 현재 생활을 변화시킬 만한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P>0.05$)

<표 4-31> 연령과 직업변경 의지

		20-24세				전체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직 업 변 경	바꾸고 싶다	7 (4.3%)	15 (9.3%)			22 (13.7%)
	바꾸고 싶지 않다	30 (18.6%)	52 (32.3%)	12 (7.5%)	4 (2.5%)	98 (60.9%)
	모르겠다	14 (8.7%)	19 (11.8%)	7 (4.3%)	1 (0.6%)	41 (25.5%)
전체		51 (31.6%)	86 (53.4%)	19 (11.8)	5 (3.1%)	161 (100.0%)

$$\chi^2 = 6.019 \quad df = 6 \quad P = 0.421$$

<표 4-32>은 연령과 장래 목표를 살펴본 것으로, 자금모아 자영업이 75.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결혼으로 10.6%로 응답했고, 목표없다

가 2.5%로 기술배워 취업은 1.9%로 나타났다. 연령으로 보면, 25-29세가 가장 많고, 다음이 20-24세, 30-34는 11.8%, 35세 이상은 3.1%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업으로 인해 갖게되는 인식으로 결혼적령기의 여성들이 결혼의 기대보다 자립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 가진 기술이 없고 현재 하는 일 외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자포자기하게 되고 생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P>0.05)

<표 4-32> 연령과 장래목표

		연령				전체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장래목표	목표없음	1 (0.6%)	2 (1.2%)	1 (0.6%)		4 (2.5%)
	기술 배워 취업	2 (1.2%)	1 (0.6%)			3 (1.9%)
	결혼	3 (1.9%)	11 (6.8%)	3 (1.9%)0		17 (10.6%)
	자금모아 자영업	43 (26.7%)	61 (37.9%)	13 (8.1%)	4 (2.5%)	121 (75.2%)
	기타	2 (1.2%)	11 (6.8%)	2 (1.2%)	1 (0.6%)	16 (9.9%)
전체		51 (31.7%)	86 (53.4%)	19 (11.8%)	5 (3.1%)	161 (100.0%)

$$\chi^2 = 9.077 \quad df = 12 \quad P = 0.696$$

<표 4-33>는 연령과 희망직업을 살펴 본 것으로 제시된 문항에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지만 희망직업으로 옷가게가 23.6%로 가장

많고, 카페가 13.7%, 음식점이 8.1%, 꽃집이 5.6%, 단란주점 5.0%, 서점 및 비디오점이 4.3%, 미장원은 3.7%, 슈퍼마켓운영은 2.5%로 나타났다. 연령은 25-29세가 53.4%로 가장 많고, 20-24세는 31.7%, 30-34세가 11.8%, 35세 이상은 3.1%로 응답했다.($P>0.05$)

<표 4-33> 연령과 희망직업

		연령				전체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희망직업	식당(음식점)		10 (6.2%)	2 (1.2%)	1 (0.6%)	13 (8.1%)
	미장원	5 (3.1%)		1 (0.6%)		6 (3.7%)
	꽃집	3 (1.9%)	4 (2.5%)	2 (1.2%)		9 (5.6%)
	카페, 커피숍	8 (5.0%)	12 (7.5%)	1 (0.6%)	1 (0.6%)	22 (13.7%)
	서점, 비디오점	2 (1.2%)	3 (1.9%)	1 (0.6%)	1 (0.6%)	7 (4.3%)
	단란주점	3 (1.9%)	4 (2.5%)	1 (0.6%)		8 (5.0%)
	슈퍼마켓	2 (1.2%)	2 (1.2%)			4 (2.5%)
	옷가게	17 (10.6%)	17 (10.6%)	3 (1.9%)	1 (0.6%)	38 (23.6%)
	기타	11 (6.8%)	34 (21.1%)	8 (5.0%)	1 (0.6%)	54 (33.5%)
전체		51 (31.7%)	86 (53.4%)	19 (11.8%)	5 (3.1%)	161 (100.0%)

$$\chi^2 = 28.884 \quad df=24 \quad P = 0.225$$

<표 4-34>는 학력과 상담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상담이 필요없다는 58.9%로 가장 많고, 전혀 필요없다가 14.3%로 나타났다. 상담이 필요하다는 11.8%로 꼭 필요하다는 4.3%로 나타났다. 학력으로 살펴보면, 고졸이 59.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졸 34.8%, 초등졸이 5.0%로 대졸은 1.2%만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표 4-34> 학력과 상담필요성 인식

		학력				전체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상담 필요	꼭 필요하다		6 (3.7%)	1 (0.6%)		7 (4.3%)
	필요하다		5 (3.1%)	14 (8.7%)		19 (11.8%)
	필요없다	4 (2.5%)	27 (16.8%)	61 (37.9%)	2 (1.2%)	94 (58.4%)
	전혀 필요없다	3 (1.9%)	9 (5.6%)	11 (6.8%)		23 (14.3%)
	기타	1 (0.6%)	9 (5.6%)	8 (5.0%)		18 (11.2%)
전체		8 (5.0%)	56 (34.8%)	95 (59.0%)	2 (1.2%)	161 (100.0%)

$$\chi^2 = 18.524 \quad df=12 \quad P = 0.101$$

<표 4-35>은 학력에 따른 직업변경 의지를 분석한 것으로 학력과는 상관없이 직업변경의지는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특히 중졸과 고졸에서의 직업변경의사에 부정적인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에 고졸 학력으로 현재의 수입보다 더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직업에 머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표 4-35> 학력과 직업변경 의지

		학력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직업 변경	바꾸고 싶다		11 (6.8%)	11 (6.8%)		22 (13.7%)
	바꾸고 싶지 않다	5 (3.1%)	30 (18.6%)	62 (38.5%)	1 (0.6%)	98 (60.9%)
	모르겠다	3 (1.9%)	15 (9.3%)	22 (13.7%)	1 (0.6%)	41 (25.5%)
전체		8 (5.0%)	56 (34.8%)	95 (59.0%)	2 (1.2%)	161 (100.0%)

$$\chi^2 = 5.132 \quad df = 6 \quad p = 0.527$$

<표 4-36>은 학력과 장래목표를 살펴 본 것으로 자영업을 원하는 응답자가 전체 75.2%로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결혼에 대한 목표는 10.6%로 장래목표 없다는 2.5%로 기술 배워 취업은 1.9%로 나타났다. 학력으로 보면 고졸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졸은 34.8%로 응답했고, 초등졸은 5.0%로 대졸은 1.2%로 조사되어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표 4-36> 학력과 장래목표

		학력				전체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장 래 목 표	장래목표없음		2 (1.2%)	2 (1.2%)		4 (2.5%)
	기술배워 취업		2 (1.2%)	1 (0.6%)		3 (1.9%)
	결혼	2 (1.2%)	6 (3.7%)	9 (5.6%)		17 (10.6%)
	자금모아 자영업	4 (2.5%)	42 (26.1%)	74 (46.0%)	1 (0.6%)	121 (75.2%)
	기타	2 (1.2%)	4 (2.5%)	9 (5.6%)	1 (0.6%)	16 (9.9%)
합계		8 (5.0%)	56 (34.8%)	95 (59.0%)	2 (1.2%)	161 (100.0%)

$$\chi^2 = 10.321 \quad df=12 \quad p = 0.588$$

<표 4-37>에서 학력에 따른 희망직업을 살펴 본 것으로 제시된 문항에 전체적으로 넓은 분포를 보였지만 옷가게가 3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카페와 커피숍이, 13.7%의 순으로 직종을 원했으며 식당은 8.1%로 나타났다. 꽃집은 5.6%이고 단란주점 5.0%, 미장원이 3.7%로 슈퍼마켓이 2.5%로 나타났다. 이를 학력으로 살펴보면 고졸이 59.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졸로 34.8%, 초등졸이 5.0%, 대졸이 1.2%의 순으로 나타나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표 4-37> 학력과 희망직업 의지

		학력				전체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희 망 직 업	식당(음식점)	1 (0.6%)		12 (7.5%)		13 (8.1%)
	미장원	1 (0.6%)	3 (1.9%)	2 (1.2%)		6 (3.7%)
	꽃집		4 (2.5%)	5 (3.1%)		9 (5.6%)
	카페, 커피숍		9 (5.6%)	13 (8.1%)		22 (13.7%)
	서점, 비디오점	1 (0.6%)	2 (1.2%)	4 (2.5%)		7 (4.3%)
	단란주점		4 (2.5%)	4 (2.5%)		8 (5.0%)
	슈퍼마켓	1 (0.6%)	2 (1.2%)	1 (0.6%)		4 (2.5%)
	옷가게	1 (0.6%)	17 (10.6%)	20 (12.4%)		38 (23.6%)
	기타	3 (1.9%)	15 (9.3%)	34 (21.1%)	2 (1.2%)	54 (33.5%)
		8 (5.0%)	56 (34.8%)	95 (59.0%)	2 (1.2%)	161 (100.0%)

$$\chi^2 = 25.211 \quad df=24 \quad p = 0.394$$

<표 4-38>는 종사년수와 상담필요성을 살펴보면, 상담이 필요없다가 58.8%로 가장 많고, 전혀 필요없다는 14.4%로 나타났다. 상담이 필요하다는 11.9%이며 꼭 필요하다는 4.4%로 나타났다. 이를 종사년수로 보면 1-3년미만이 41.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1년미만이 31.9%, 3-5년미만이 16.3%, 5-8년미만이 6.9%, 8년이상 3.1%로 나타나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가출 후 부모와의 관

계단절, 사회적 자원의 박탈을 경험한 이들이 현재 생활의 무력함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P>0.05)

<표 4-38> 종사년수와 상담필요성 인식

		종사년수					전체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8년 미만	8년 이상	
상담 필요	꼭 필요하다	3 (1.9%)	3 (1.9%)	1 (0.6%)			7 (4.4%)
	필요하다	7 (4.4%)	9 (5.6%)	1 (0.6%)	1 (0.6%)	1 (0.6%)	19 (11.9%)
	필요없다	29 (18.1%)	35 (21.9%)	18 (11.3%)	9 (5.6%)	3 (1.9%)	94 (58.8%)
	전혀 필요없다	5 (3.1%)	13 (8.1%)	4 (2.5%)		1 (0.6%)	23 (14.4%)
	기타	7 (4.4%)	7 (4.4%)	2 (1.3%)	1 (0.6%)		17 (10.6%)
전체		51 (31.9%)	67 (41.9%)	26 (16.3%)	11 (6.9%)	5 (3.1%)	160 (100.0%)

$$\chi^2 = 9.889 \quad df=16 \quad p = 0.872$$

<표 4-39>은 현재 직업종사 기간에 따른 직업변경 의지를 분석한 것 중 전체의 60.9%가 바꾸고 싶지 않다고 가장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25.5%로 바꾸고 싶다는 13.7%가 직업변경의지를 보였다. 이를 종사년수와 살펴보면, 1-3년미만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1년미만

이 31.7%로, 3-5년미만이 16.1%, 5-8년미만이 6.8%이며 8년이상은 3.1%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래의 희망을 보면 돈을 벌어 가게를 내기 원하는 응답자가 80%가 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일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05)

<표 4-39> 종사년수와 직업변경 의지

		종사년수					전체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8년 미만	8년 이상	
직 업 변 경 의 지	바꾸고 싶다	6 (3.7%)	10 (6.2%)	3 (1.9%)	3 (1.9%)		22 (13.7%)
	바꾸고 싶지 않다	30 (18.6%)	39 (24.2%)	19 (11.8%)	6 (3.7%)	4 (2.5%)	98 (60.9%)
	잘모르겠다	15 (9.3%)	19 (11.8%)	4 (2.5%)	2 (1.2%)	1 (0.6%)	41 (25.5%)
전체		51 (31.7%)	68 (42.2%)	26 (16.1%)	11 (6.8%)	5 (3.1%)	161 (100.0%)

$$\chi^2 = 5.432 \quad df=8 \quad p = 0.711$$

<표 4-40>은 종사년수와 장래목표를 살펴 본 것으로 자영업을 원하는 응답자가 전체 75.2%로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

로 결혼이 10.6%로 나타났다. 장래에 목표가 없다는 2.5%로 기술배워
취업은 1.9%로 나타났다. 이를 종사년수로 살펴보면 1-3년 미만이
42.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년 미만으로 31.7%로 나타났다. 3-5
년 미만은 16.1%이고, 5-8년은 6.8%로 8년 이상은 3.1%로 응답하여 통
계적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표 4-40> 종사년수와 장래목표

		종사년수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8년 미만	8년 이상	
장 래 목 표	장래목표 없음	2 (1.2%)	1 (0.6%)	1 (0.6%)			4 (2.5%)
	기술배워 취업		3 (1.9%)				3 (1.9%)
	결혼	3 (1.9%)	11 (6.8%)	2 (1.2%)		1 (0.6%)	17 (10.6%)
	자금모아 자영업	39 (24.2%)	49 (30.4%)	23 (14.3%)	7 (4.3%)	3 (1.9%)	121 (75.2%)
	기타	7 (4.3%)	4 (2.5%)		4 (2.5%)	1 (0.6%)	16 (9.9%)
합계		51 (31.7%)	68 (42.2%)	26 (16.1%)	11 (6.8%)	5 (3.1%)	161 (100.0%)

$$\chi^2 = 24.017 \quad df=16 \quad p = 0.089$$

<표 4-41>에서 현재 직업의 종사 기간에 따른 희망직업을 살펴 본 것으로 제시된 문항에 전체적으로 넓은 분포를 보였지만 옷가게가 25.2%로, 카페와 커피숍이 14.6%, 식당, 음식점은 8.6%로, 꽃집이 6.0%, 단란주점이 5.3%, 서점 및 비디오점이 4.6%, 미장원 4.0% 슈퍼마켓이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사년수로 살펴보면, 1-3년미만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1년 미만으로 31.8%로 3-5년 미만은 15.2%로, 5-8년 미만은 7.3%이며 8년 이상은 3.3%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종사년수와 희망직업은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표 4-41> 종사년수와 희망직업

		종사년수					전체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8년 미만	8년 이상	
희망직업	식당(음식점)	1 (0.7%)	5 (3.3%)	3 (2.0%)	1 (0.7%)	3 (2.0%)	13 (8.6%)
	미장원	4 (2.6%)	2 (1.3%)				6 (4.0%)
	꽃집	2 (1.3%)	3 (2.0%)	4 (2.6%)			9 (6.0%)
	카페, 커피숍	8 (5.3%)	11 (7.3%)	3 (2.0%)			22 (14.6%)
	서점, 비디오점	2 (1.3%)	1 (0.7%)	1 (0.7%)	3 (2.0%)		7 (4.6%)
	단란주점	2 (1.3%)	4 (2.6%)	2 (1.3%)			8 (5.3%)
	슈퍼마켓	1 (0.7%)	2 (1.3%)	1 (0.7%)			4 (2.6%)
	옷가게	13 (8.6%)	20 (13.2%)	2 (1.3%)	2 (1.3%)	1 (0.7%)	38 (25.2%)
	기타	15 (9.9%)	16 (10.6%)	7 (4.6%)	5 (3.3%)	1 (0.7%)	44 (29.1%)
전체		48 (31.8%)	64 (42.4%)	23 (15.2%)	11 (7.3%)	5 (3.3%)	151 (100.0%)

$$\chi^2 = 54.297 \quad df = 32 \quad p = 0.008$$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도 성남시 중동 지역에 밀집하고 있는 유흥업소(일명 유리방) 여성종사자 161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와 함께 직업관련 욕구를 조사하여 향후 이들 여성들이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고 연령은 대부분이 20대로 조사되었다. 장래목표는 돈을 벌어 자영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사실상 탈매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생활에서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문제로 보고 있으며, 월수입은 타직종의 여성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으며, 취미와 문화생활 욕구에서 운동과 여행을 소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변경의지를 묻는 질문에 바꾸고 싶지 않다가 70%로 나타났고, 취업교육의사에 대한 질문에 받을 의사 없다가 89.4%로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향후 사회복귀지원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함을 시사했다.

취업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으로 학력의 부족과 자신감의 결여를 문제로 보고 그것은 사회기술 부족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현재 생활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와 여성단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반수 이상의 여성들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현실이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사회인과 비교해 볼 때, 한정된 공간에서 정보의 차단과 사회복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

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복귀의 대한 의지나 직업전환의 욕구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들자면 지금까지 정부정책이나 사회적 인식은 매춘여성들에 대해 처벌이나 멸시의 시선으로 보는데서 오는 자괴감과 함께 사회적 지원에 대해 인식조차 할 수 없는 환경과 자신의 어려움이나 욕구를 쉽게 드러낼 수 없는 강제된 공간속에서 설문조사가 갖는 한계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이는 기존의 질적 연구와 현장활동가의 증언을 통해 뒷받침되었으며, 본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위해 몇 번에 현장 예비답사를 하면서 만난 25명의 여성들과의 면담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문제가 있어도 제기하지 못하고, 의지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주위자원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서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매춘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매춘여성의 입장이나 정확한 실태없이 일방적인 편의주의로 결정된다면 매춘여성의 문제는 언제나 반복되는 문제를 갖게된다.

특히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가 심한 특정 밀집지역의 피해여성들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단 매춘생활을 시작하면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이 어렵고,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이 부족한 이들이 다른 직업을 갖는다고 해도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설령 벗어났다 하더라도 가출을 통해서 사회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특별한 기술을 계발시킬 환경을 갖지 못했기 때

문에 벗어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현재의 생활을 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탈매춘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경제적 대안 부재와 함께 사회적 낙인의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수입을 가로채고 있는 포주나 알선업자들로 인해 은행의 이용이나 의료보험의 가입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적 개입없이 이들 여성들의 탈매춘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매춘여성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현실가능한 것으로 현장지원서비스를 들 수 있다. 현재 매춘여성의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서 사회복귀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현장접근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현장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뒷받침해줘야 하며 이에 따라 탈매춘을 유도하는 현장활동가의 참여가 보장되면 민간단체나 사회복지기관과의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및 의료상담, 쉼터제공, 직업적 대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사업은 매춘여성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수용해줄 자원을 인식시키고,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강압을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변화를 갖게 될 것이다.

끝으로 매매춘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강제적 처벌, 묵인을 지양하고, 포주나 업주에게도 상담의 장을 만들어 폭력이나 빚으로 강제하는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이러한 모든 여건이 매춘여성이 자발적으로 탈매춘을 선택하고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수,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정숙, 『매춘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찬숙, 『가출청소년의 사회사업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1997.
- 김현준, 『윤락행위규제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배종호, 『접객서비스업 여성종사자의 윤락실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산하영애, 『한국근대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손기원, 『윤락여성의 생활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서정범, 『그리스도교적 인권의 개념에서 본 한국 매매춘 문제에 대한 분석』,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기영, 『윤락여성의 내~외 통제소재 및 삶의 목적 수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5.
- 오지연, 『미군 기지촌 매춘여성들의 주변적 문화』,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효희, 『십대여성의 성적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원미혜,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7.
- 윤호정, 『윤락여성 실태 및 선도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채갑순, 『윤락여성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황창용,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평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신혜수, 『매매춘 문제에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 방안』,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7.
- 카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성평등 연구 제2집』, 1998.
- 새움터,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2001.
- 인권운동사랑방. 2000.
- 한소리회 자료.
- 사회복지법인 은성원 자료, 2001.
- 김동일, 『성의 사회학』, 문음사, 1992.
-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1.
- 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1994.
-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 이능화, 『조선해어화사』, 서울, 동문선, 1992.
- 이진분, 『성평등 문화를 여는 교육』, 또 하나의 문화, 1996.
- 황진수, 『복지행정론』, 대영출판사, 1999.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김미숙외, 서울. 을유문화사, 2000 3판.
- 김인숙, 김혜선, 신은주,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나남출판, 1997.

한겨레신문, 2001년 12월 19일, 2002년 1월 4일

신동아2001, 8월호

인터넷 자료

〈국외문헌〉

Anthony Giddens(1989), *Sociology*, London : Polity Press,

Barry, Kathleen(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Robert, Kickie(1992), *Whores in history : Pro in Western Society*,
London : The Guernsey Press Co. Ltd.

Shrage, Laurie(1989), "Should Feminist Oppose Prostitution?", *Ethics*
99,(1994). *Moral dilemmas of Feminism*, New York,
London:Rou.

ABSTRACT

A study on measures to support the social readjustment of female prostitutes

- A case Study of the red-light district (a.k.a. Glass Rooms) near the Jungdong, Sungnam area in Kyunggi Provinc -**

**Han Ok Wha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 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asic social readjustment support data by surveying 161 female prostitutes working in the red-light district (a.k.a. Glass Rooms) near the Jungdong, Sungnam area in Kyunggi Provi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Despite the prejudice, criticism, and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reason why these women cannot breakaway from it is because there is no real alternative. The motive of prostitution was for earning money and despite their age, they wanted to be

self-employed rather than married.

Of those surveyed, most settled in their current occupation by roaming about from one shop to another after running away from home, and are unwilling nor hoping to change their occupation. The primary factor for this structural problem is that these women did not go through proper education nor socialization, and with the prostitution market environment using them branding them as prostitutes and has left them no choice.

Therefore, before considering measures to support the social readjustment of female prostitutes, there needs to be strong national legal support to provide accurate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on-site medical, legal counseling.

부 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
입니다. 귀하께 드린 설문지는 여성종사자의 욕구에 대한 자료
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통계로만 사용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
견을 연구이외에 다른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여러분들에
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쓰여질 것입니다.

귀하의 따뜻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2. 4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한옥화

I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문제

1. 현재 귀하의 연령은?

- ① 14~19세 ② 20~24세 ③ 25~29세 ④ 30~34세 ⑤ 35세 이상

2.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학 ② 초등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3. 귀하의 현재 결혼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 ① 기혼 ② 미혼 ③ 동거 ④ 사별 ⑤ 이혼

4. 귀하가 집을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친구의 권유로
② 부모나 형제와의 불화 또는 학대 때문에
③ 학교 중퇴
④ 성폭력을 당한 뒤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⑤ 집안이 어려워서
⑥ 기타 ()

5. 귀하는 이 곳으로 오기 전 과거 직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① 회사 사무원
②接客업소종사(다방, 룸싸롱, 커피숍등)
③ 생산직 공원
④ 가정주부
⑤ 점원
⑥ 기타 ()

6. 귀하는 현재의 일을 얼마 동안 하고 계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 ~ 3년미만 ③ 3 ~ 5년미만
- ④ 5 ~ 8년미만 ⑤ 8년 이상

7. 귀하의 가족관계는 어떠했습니까?

- ① 부모가정이 깊었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다
- ② 부모가 이혼한 상태거나 별거 중이었다
- ③ 친척이나 가족간의 우애가 없었다
- ④ 서로 도우려고 노력하고 발전을 도모했다
- ⑤ 부모, 자식간에 신경쓴 일도 없고 따뜻한 정도 없다

8. 귀하의 장래 목표는 무엇입니까?

- ① 아무 것도 없다 ② 기술 배워 취업하는 것
- ③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는 것 ④ 돈벌어서 자 영업하는 것
- ⑤ 기타 ()

9. 귀하는 현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어떤 것입니까?

- ① 건강 ②학업, 진학 ③경제(돈) ④ 결혼 및 이성관계
- ⑤ 직업훈련 ⑥ 취미생활 ⑦ 문화생활 ⑧ 기타()

10. 귀하가 현재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어느 것입니까?

- ① 진로문제(취업, 진학) ② 건강문제 ③자신의 성격문제
- ④ 이성문제 ⑤ 가족문제 ⑥ 기타 ()

11. 귀하의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본 + 수당)

- ① 100만원 이하 ② 100만원이상 150이하 ③ 150만원이상 200이하
- ④ 200만원이상 250이하 ⑤ 250만원이상 350이하 ⑥350만원이상

12. 귀하는 월수입 중에서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 ① 부모나 형제에게 송금 ② 옷, 화장품, 간식비 ③ 의료비
④ 빚, 이자 ⑤ 저축 ⑥ 기타()

II. 건강, 취미, 문화생활의 욕구

13. 귀하는 현재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습니까?

- ① 모두 다한다 ② 음주만 한다 ③ 흡연만 한다 ④ 모두 다 안 한다

14. 귀하는 현재 건강 상태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십니까?

- ① 위장계통 ② 체중의 증가 ③ 간장병
④ 산부인과 계통(자궁질환) ⑤ 신경계(두통 및 스트레스)
⑥ 호흡기(폐, 기관지) ⑦ 기타()

15. 귀하가 취미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운동(수영, 헬스) ② 홈패션(십자수, 뜨개질, 바느질)
③ 노래부르기 ④ 요리 ⑤ 여행, 등산 ⑥ 독서(잡지, 신문)

16. 귀하가 문화생활을 하고 싶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인터넷 사용 ② 각종 스포츠 활동 ③ 연극, 영화 감상
④ 교양강좌 ⑤ 여행 ⑥ 음악, 미술감상 ⑦ 기타()

III. 취업안내와 취업훈련의 욕구

17. 귀하는 현재의 직업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18. 귀하가 직업을 바꾸고 싶다면 어떤 직업을 원하십니까?

- ① 식당(음식점) ② 미장원 ③ 꽃집 ④ 카페, 커피숍
- ⑤ 서점, 비디오점 ⑥ 단란주점 ⑦ 슈퍼마켓
- ⑧ 옷가게 ⑨ 기타 ()

19. 귀하는 취업훈련기관에서 취업안내나 취업훈련을 받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20. 만약 취업 훈련을 받게 된다면 어떤 내용을 원하십니까?

- ① 조리, 요리사 ② 제과, 제빵사 ③ 미용사 ④ 컴퓨터
- ⑤ 도배사 ⑥ 사무직 ⑦ 창업교육 ⑧ 기타()

21. 귀하는 취업을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① 학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② 거주할 집이 마련 안돼서
- ③ 기술이 없어서 ④ 급여가 적어서
- ⑤ 사회적응기술이 부족해서 ⑥ 빚의 청산이 어려워서
- ⑦ 기타()

22. 귀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본인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② 정부의 고용정책 개선
- ③ 취업에 적합한 기술이나 능력개발
- ④ 직업교육이나 직업 훈련 기회제공 ⑤ 기타 ()

23. 직업을 가질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역사회 취업훈련기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몰랐다 ② 이름, 위치정도 안다 ③ 잘 알고 있다

24. 귀하는 현재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IV.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욕구 문항

25. 귀하는 유흥업 종사자로 일하는데 고충처리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 없다
④ 전혀 필요 없다
⑤ 기타()

26. 귀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모님 ② 친구 ③ 애인 ④ 형제자매
⑤ 여성단체나 상담소 ⑥ 경찰 ⑦ 기타()

26. 정부에 대해 가장 바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취업을 위한 전문직업교육 이수
② 진학, 복학 준비교육
③ 부당업주. 폭력배 처벌
④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 없다
⑤ 기타 ()

27. 여성단체가 귀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28.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받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29. 귀하의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